

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

※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.(26.08.01~26.08.31)

□ 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대중교통 혁신 및 가족 친화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2,200만 달러 투자 발표 [8/1]

- 미국 교통부(DOT) 산하 연방대중교통청(FTA)이 미국 가정의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2,200만 달러 규모의 혁신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함
- 이번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'가족 친화적 교통 현대화' 기조에 따라 집행되며, 대중교통 이용 시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첨단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둠
- 해당 투자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는 '혁신적 조정 접근성 및 이동성(ICAM)' 프로그램과,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는 '버스 안전·접근성·혁신(BSAI)'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됨
- 주요 지원 분야는 운전자 및 승객 보호용 안전 시스템 강화, 가족 친화적 편의 장치를 갖춘 신규 대중교통 차량 도입, 노후 유지보수 시설 신축, 비접촉식 결제 기술 도입, 교통약자 맞춤형 예약·배차 시스템 고도화 등을 포함함
- 매튜 케이힐 연방대중교통청 부청장 대행은 출퇴근, 등하교, 병원 진료,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미국 가정의 핵심 필수 요소임을 강조함
- 미국 교통부(DOT)는 민간 산업 부문과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

□ 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전역 공항 인프라 현대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한 8억 7,000만 달러 투자 발표 [8/4]

- 미국 교통부(DOT)가 미국 전역 공항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과 안전성 및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총 8억 7,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
- 이번 자금은 연방항공청(FAA)의 '공항 인프라 보조금(AIG)'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, 미국 44개 주와 2개 준주의 총 339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
- 이는 급증하는 항공 여행 수요에 발맞추어 승객과 가족들에게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
- 주요 지원 사업은 활주로 및 유도로 개보수, 터미널 확장, 수하물 시스템 현대화, 진입 도로망 개선, 제설 장비 교체 등 다각적인 인프라 혁신을 포함함
-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(LAX) 신규 터미널 진입로 구축(2억 8,900만 달러), 마이애미 국제공항 터미널 지붕 재건(5,000만 달러), 오하이오 애크런-캔턴 공항 탑승교 및 핵심 시설 보수(910만 달러), 알래스카 주노 국제공항 제설 장비 교체(420만 달러),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국제공항 터미널 확장(370만 달러), 텍사스 슈거랜드 지역공항 활주로 재건(350만 달러) 등이 추진됨
-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장은 폭발적인 여행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록적인 속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힘

□ 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해양 패권 복원을 위한 소형 조선소 3,510만 달러 규모 지원 발표 [8/13]

- 미국 교통부(DOT)가 미국 해양 산업의 핵심 기반 재건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,51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함
- 이번 자금은 산하 해상교통청(MARAD)의 소형 조선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, 트럼프 행정부의 '미국 해양 패권 복원' 행정명령에 따라 전년 대비 300%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됨
- 해당 지원금은 미국 24개 주와 버진아일랜드 내 총 45개 소형 조선소의 핵심 인프라 구축, 노후 시설 업그레이드, 첨단 장비 도입,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입됨
- 주요 사업으로 플로리다 탬파 걸프 마린 리페어의 교육 센터 장비 및 선석 개선(100만 달러), 뉴욕 마마로넥 로버트 E. 데렉터의 해상 크레인 도입(100만 달러), 켄터키 헤브론 칼라일 앤 브레이의 부유식 건식도크 확충(99만 달러), 미시시피 파스카굴라 시그넷 마리타임의 첨단 설비 구축(38만 달러) 등이 포함됨
-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소형 조선소가 미국 해양 산업의 중추였음을 강조하며, 이번 투자가 국내 선박 건조 역량을 부활시키고 국가 안보 및 경제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힘
- 미국 교통부(DOT)는 향후에도 현대식 설비 투자와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해 미국 노동자의 해양 생태계 주도를 지원하고, 공급망 경쟁력과 해양 물류 자립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임

□ 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철도 안전 강화 및 암트랙 신규 열차 도입을 위한 53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[8/14]

- 미국 교통부(DOT)가 미국 전역의 철도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암트랙(Amtrak)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총 5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
- 이번 자금 중 약 20억 달러는 비용 초과 논란이 불거진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 지원을 철회 및 회수하여 재편성한 것임
- 교통부(DOT)는 낭비성 사업을 줄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성 개선에 자원을 집중하는 '철도의 황금기' 비전을 구현하고자 함
- 해당 투자는 연방철도청(FRA)의 '국가 철도 파트너십 프로그램(NRPP)'을 통해 집행되며, 30개 이상의 평면 건널목 폐쇄와 1,000개 이상의 건널목 안전시설 개보수를 포함함
- 철도 건널목 사고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만큼, 최근 5년간 사고 빈발 구역을 우선 선정해 입체교차로 건설 및 신호 체계 현대화를 진행할 방침임
- 아울러 암트랙 전용 투자로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산 신규 열차 세트 43편성을 구매하고 노후 장비를 대체하며,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중서부 및 태평양 노선의 기관차 41대를 전면 개보수할 예정임
- 40~50년 된 노후 차량을 신형 열차로 교체함으로써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승객 편의를 개선하며 운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납세자의 혈세를 실질적인 인프라 보수와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철도 르네상스를 이끄는 길임을 강조하며,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여객 철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밝힘

□ **미국 교통부(DOT), 허리케인 라라 피해 복구를 위한 하와이 긴급 구호 기금 600만 달러 지원 발표 [8/19]**

- 미국 교통부(DOT)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국(FHWA)이 허리케인 '라라(Lala)'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의 도로 및 교량 복구를 위해 6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(ER) 자금을 신속 투입한다고 발표함
- 2026년 8월 중순 하와이 제도를 강타한 허리케인 라라로 인해 고속도로 폐쇄, 산사태, 토사 유입 등 심각한 인프라 마비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 구호물자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
- 이번 긴급 지원금은 대규모 유실 피해가 발생한 하와이섬(빅아일랜드) 11번 도로 남측 구간의 우회 임시 도로 개설 및 본선 복구공사에 우선 투입될 예정임
- 아울러 주요 구간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및 교량 교대 세굴 등 핵심 교통 기반 시설의 긴급 보수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사용됨
- 손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하와이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고속도로 인프라 복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
- 손 맥마스터 연방고속도로관리국장 역시 주 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임
- 이번 600만 달러 지원은 1차 초기 분할금 성격으로, 연방정부는 정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하와이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임

□ **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전역 공항 인프라 현대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약 6억 1,500만 달러 투자 발표 [8/20]**

- 미국 교통부(DOT)가 미국 전역 공항 인프라의 현대화와 항공 운송 안전 강화를 위해 총 6억 1,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
- 이번 자금은 연방항공청(FAA)의 '공항 개선 프로그램(AIP)'을 통해 집행되며, 미국 46개 주의 총 238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
- 이는 항공 여행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비행 경험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탈바꿈하는 데 목적이 있음
- 주요 지원 사업은 활주로 및 유도로 보수·연장, 최신 비행장 안전시설 확충, 노후 관제탑 신설, 터미널 내 가족 친화적 편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함
- 대표적으로 텍사스 미들랜드 국제공항 활주로 개보수(2,150만 달러), 알래스카 노아탁 신규 공항 건설(1,950만 달러),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소음 저감 사업(1,530만 달러), 인디애나 게리/시카고 국제공항 신규 관제탑 설치(830만 달러), 버지니아 린치버그 지역공항 신규 터미널 건립(800만 달러),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국제공항 탑승교 교체(240만 달러) 등이 추진됨
- 손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'교통의 황금기'를 여는 핵심 과업임을 강조하며, 신속하고 실질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함
- 미국 교통부(DOT)와 연방항공청(FAA)은 향후에도 공항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여, 미국 항공 네트워크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져나갈 계획임

□ 미국 교통부(DOT), 미국 페리 인프라 현대화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6억 6,500만 달러 투자 발표 [8/21]

- 미국 교통부(USDOT) 산하 연방대중교통청(FTA)이 출퇴근과 물자 수송을 수로 교통망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억 6,500만 달러 규모의 페리 인프라 현대화 투자 계획을 발표함
- 이번 자금은 16개 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접수된 총 11억 달러 규모의 49개 신청 사업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주 및 버진아일랜드 내 23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될 예정임
- 이는 내륙 수로의 선착장 확장부터 신규 여객선 건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해상 대중교통 인프라를 혁신하는 데 목적이 있음
- 주요 지원 사업으로 알래스카 남동부 소규모 도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50년 된 노후 여객선을 대체하기 위한 알래스카 교통·공공시설부 지원(약 1억 5,341만 달러)이 포함됨
- 아울러 플로리다 잭슨빌 교통국 선착장 업그레이드(약 785만 달러), 메인주 농촌 및 도서 지역 노후 시설 현대화와 접안 능력 확충(800만 달러),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강 벨 샤스·스카스데일 페리 선착장 개보수(약 203만 달러) 등이 주요 프로젝트에 포함됨
- 매튜 케이힐 연방대중교통청 부청장 대행은 대도시부터 농촌 지역까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을 페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함
- 이번 투자는 신규 노선 개설과 고효율 선박 도입을 통해 통근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